

유아에 대한 양육자의 애착,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간의 관계 :
시설보호 유아와 일반 유아의 비교

Relationships between Caregivers' Attachment, Young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nd Aggression : Institutionalized vs. Home-Reared Children

김성애(Sung Ae Kim)¹⁾

박성연(Seong Yeon Park)²⁾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relationships between caregivers' attachment, young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nd aggression. Subjects were 110 institutionalized and 105 home-reared children (M=3.8 and 4.2 years, respectively). Data were collected from children's caregivers via questionnaires and analyzed by ANOVA, correlations, and hierarchical regressions. Results showed that (1) caregivers' attachment and the emotion regulation and aggression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of home-reared children; (2) caregiver's attachment was positively related to emotion regulation for both institutionalized and home-reared children; (3) for institutional children, negative relationships between attachment and aggression was found for girls; negative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 regulation and aggression was found for boys. These findings underscore negative effects of institutionalized care on children's socio-emotional behaviors.

Key Words : 양육자의 애착(caregivers' attachment), 정서조절(emotion regulation), 공격성(aggression), 시설보호 유아(institutionalized children).

¹⁾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 석사과정

²⁾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및 아동학 협동과정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eong Yeon Park, Dept. of Psychology;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College of Social Sciences, Ewha Womans University, 11-1 Daehyun-dong,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E-mail : psy@ewha.ac.kr

I. 서 론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전국 282개 시설에서 약 11,396명의 아동이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보건복지부, 2007). 그 중 2007년에 새로이 발생한 8,861명의 시설보호 아동 중 60.4%인 5,354명의 아동이 빈곤, 실직, 학대 등의 이유로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이 고아나 기아보다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해체, 학대, 미혼모의 증가 등의 이유로 가정에서 양육되지 못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설보호는 아동양육에 부적절한 환경으로 인해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특히 영유아기의 시설보호는 더욱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시설보호가 반드시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부모로부터 심리적, 정서적으로 결핍된 점을 시설 내의 심리적인 환경개선이나 교육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김상아·박응섭, 2007) 견해도 있어, 시설보호 아동의 양육환경 및 행동적 문제와 관련된 변인들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시설보호 아동은 일반아동보다 위축, 신체증상, 불안·우울, 사회적 미성숙, 사고력 및 주의집중력, 비행 등 다수의 항목에서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노혜련·장정순·백은형, 1997). 또한 협동기술, 자기주장 기술 및 자아통제기술이 부족하며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고 추론하는 능력이 낮고, 일반아동에 비해 학교적응을 잘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유안진·민하영·권기남, 2001). 이 외에도 시설보호 아동은 공격적 성향이 높고(성미영, 2006; 이강이·성미영·이순형, 2002), 입소기간이 길어질수록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이진숙·한

지현, 2005).

이러한 문제들 중 특히 공격성은 유아의 사회적 기능과 적응에서 어려움을 예측해주는 변수(Coie & Dodge, 1998)로서 일반적으로 남아에게 더 두드러지는 특성이다(Tremblay, 2000). 선행연구에 의하면 공격성의 성차는 6세를 전후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고(Maccoby & Jacklin, 1980), 공격성 정도는 연령에 따른 변화가 매우 적기 때문에 유아기 때 조기개입이 되지 않으면 청소년기나 성인기의 여러 가지 부적응이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Rubin, Stewart, & Chen, 1995). 공격성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Tremblay, 2000)나 공격성이 세대 간 전이를 통해 계속 이어지며, 공격성 발달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박성연, 2002; 박혜경·박성연, 2002)는 공격성에 대한 조기개입의 필요성과 더불어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관심대상인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그들이 처한 환경적 특성상(양육자의 돌봄이 충분치 않거나 집단생활로 인한) 공격적 행동의 발달이나 공격성표현이 아동기 초기부터 보다 쉽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성에 대한 우리나라 선행연구들은 일반가정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인 한편, 대상 연령층에서도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시설보호 아동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시설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공격적인 성향이 높다는 보고는 대부분 초등학교 이상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설보호 유아를 대상으로 공격성과 관련된 변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격성 발달과 관련된 이론은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의 본능이론을 비롯하여 욕구좌절이론, 사회학습 이론, 정보처리 이론 등이 있으나, 대

부분의 이론가들이 공격적인 행동이 인간의 내적 요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데 합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사회정보처리 모델을 제안한 Dodge(1986)는 한 개인이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오는 사회적 단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행동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즉 특정한 인지적 특성을 지닌 유아는 모호한 상황에서 타인의 의도를 적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탐색할 때도 공격적인 대안을 더 선호하고 다른 대안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안지영, 1992; Quiggle & Dodge, 1992). 이러한 인지성향은 어렸을 때 양육행동이나 부모자녀관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

한편 초등학교생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공격성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공격성의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어린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양육자의 양육행동 대신 유아에 대한 양육자의 애착 정도를 공격성의 선행변인으로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양육자가 유아에게 갖는 애착을 측정하는 이유는 애착연구들이 대개 낮선상황실험이나 애착Qsort를 통해 유아의 애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나, 시설이라는 상황에서 양육자에 대한 유아의 애착을 측정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애착이 양육자와 영아 간 쌍방향적인 정서적 관계를 의미하며, 양육자의 애착이 유아에 대한 양육자의 감정이나 양육 태도에 영향을 미치므로(Bronnwich, 1990) 대부분의 시간을 양육자와 보내는 어린 유아의 경우는 양육자의 애착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유아와의 애정적 접촉 관계인 양육자의 애착은 유아에 대한 민감성과 반응성으로 개념화되며(Ainsworth, 1967), 이러한

관계는 양육자에 대한 유아의 애착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유아의 사회적, 정서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양육자와 유아간의 애착형성은 유아의 공격성뿐만 아니라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양육자는 유아의 정서적 행동적 반응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Calkins, 1994), 아동의 정서조절행동은 양육자와의 애착역사에 기초한다(Cassidy, 1994). 같은 맥락에서 Thompson(1999)은 양육자의 민감한 행동이 유아의 안정애착과 관련되며,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정서적인 고통이나 문제 상황에 직면하여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정서적인 조절능력 및 대처행동을 나타내게 된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시설에서 양육되는 유아의 경우 집단생활 여건상 부모나 보육사 등 주 양육자로부터 충분한 관심이나 민감한 반응 및 반응적인 정서적 지지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정서적인 조절능력이나 자아통제력, 문제해결 방식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한편 정서조절 능력은 타인과의 관계형성과 상호작용에 필수적으로 중요한 능력(Cole, Martin, & Dennis, 2004)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부정적인 반응을 지연하는 능력 뿐 아니라, 정서적인 경험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능력으로써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성연 · 강지훈, 2003; Schwartz & Proctor, 2000; Shields & Cicchetti, 1998). 양육자의 애착과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간의 잠정적인 관계는 부모의 민감성과 정서이해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간의 정적관계(김선숙, 2007),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영아의 정서조절능력간의 관계(양연숙, 2000) 및 시설보호 아동이 정서장애 및 반사회적 행동을 많이 보인다는 보고(노혜

련 등, 1997; 박현숙, 1998; Rutter, 1972)로 뒷받침된다.

요약하면 시설보호 유아의 경우에는 시설이라는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주 양육자의 충분한 애정적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고, 이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결과적으로 시설보호 유아는 일반가정 유아보다 높은 공격성을 나타낼 것으로 가정된다. 또한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이 양육행동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선행연구결과(김선숙, 2007; 박혜경·박성연, 2002) 및 양육자의 행동과 정서조절 능력 및 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능력의 매개역할을 제안한 Calkins(1994)의 이론에 근거하여,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양육자의 유아에 대한 애착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시설보호 유아와 일반유아의 양육자의 애착관계 및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그리고 공격성 정도를 비교함과 동시에, 양육자의 애착과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아의 경우 정서조절 능력이 낮고(김지윤, 2007; 박성연·강지훈, 2003; 임희수·박성연, 2002; Weinberg, Tronick, Cohn, & Olson, 1999), 공격성은 높다는 일관적인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나(Crick, Casas & Mosher, 1997; Crick, Werner, Casas, O'Brien, Nelson, Grotper, & Markon, 1999; Hart, Yang, Nelson, & Robinson, 2001), 양육자의 행동은 유아의 성에 따라 대체로 차이가 없다는 견해와(Lamb, Hwang, Ketterlinus, & Fracasso, 1999) 성차가 있다는 보고도 있어(Crockenberg, 1986) 비밀관성을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성을 연구변인으로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유아에 대한 양육자의 애착,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은 유아의 성 및 시설거주여부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에 대한 양육자의 애착과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능력은 매개역할을 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36개월-72개월 미만의 유아로서 시설보호 유아는 서울, 경기, 인천, 제주도 소재 유아보호시설로부터 표집된 110명(남아; 55명, 여아; 55명)이며, 일반가정 유아는 서울, 신도시의 어린이집으로부터 임의로 표집된 105명(남아; 55명, 여아; 50명)이다. 본 연구는 시설보호 유아와 일반가정에서 유아를 돌보고 있는 보육사 26명과 어머니 105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시설보호 유아의 평균연령은 3.84세($SD=.77$), 일반유아의 평균연령은 4.22세($SD=.82$)로 나타나 일반가정의 유아의 연령이 시설보호 유아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보호 유아의 시설입소기간은 3년 이상~5년 미만이 약 52%로 평균 시설입소기간은 3.8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보호 유아의 입소원인으로는 미혼모가 39명(37.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 결손가정이 29명(26.4%)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육사들의 평균연령은 30.5세($SD=6.8$)로 나타난 반면 어머니들의 평균연령은 36.2

1) 본 연구에서 시설거주여부란 시설보호 유아인지, 일반가정 유아인지를 뜻함.

세($SD=2.8$)로 나타났다. 보육사와 어머니의 학력은 대부분 대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나타내었으며, 보육사의 근무경력은 평균 3.5년으로 대부분이(77%) 미혼이었으며 1인당 평균 9명의 유아들을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정 유아의 어머니들은 약 44%가 전업주부인 한편 어머니의 56%가 취업모였으며, 취업모의 약 43%가 전문직 및 회사원이었다. 일반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약 54%가 350만원~500만원 미만에 집중되어 있어, 교육정도 및 경제수준으로 보아 중류층으로 볼 수 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자료는 어머니 또는 보육사 보고용 질문지로 수집하였으며, 질문지는 양육자가 지각하는 유아에 대한 양육자의 애착,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공격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양육자의 애착

양육자인 보육사와 어머니의 유아에 대한 애착을 알아보기 위하여 황현주(2005)의 ‘어머니 애착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생후 1개월부터 사용가능하며, 우리나라 어머니의 전통적인 문화적 배경과 정서적 문화에 기반을 두고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을 측정하고자 개발된 어머니 보고용 애착척도이다. ‘어머니 애착척도’는 긍정적 정서, 접촉추구, 자기희생적 온정, 근접추구, 보호, 결속, 냉담, 기대감 등의 8요인,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인 3-5세 유아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내용(배변 및 수유관련)으로 판단되는 2개 문항을 제외하고 총 48문항을 사용하였다.

보육사와 어머니들은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

게 되어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 애착척도의 문항내적 합치도와 반분신뢰도는 각각 .88과 .94, 그리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2로 보고되었으며(황현주, 2005),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로 측정된 문항내적 일치도는 보육사와 어머니 각각 .94 과 .95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2) 정서조절 능력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Shields와 Cicchetti(1998)의 ERC(Emotional Regulation Checklist)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조절이 잘 되는 아동과 그렇지 못한 아동 간의 변별을 목적으로 하며 정서적 불안정성, 정서표현의 적절성 및 정서처리 능력을 측정하도록 되어있다. 본 척도는 불안정/부정적 정서요인(15문항)과 정서통제요인(9문항)의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총 24문항으로 1점(거의 그렇지않다)에서 4점(매우그렇다)까지의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불안정/부정적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유발 및 공격적 상황에서 자신의 기분변화에 따라 정서적 강도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는 것을 뜻하며, 본 논문에서는 모두 역코딩하여 안정적 정서를 뜻하도록 하였다. 한편 정서통제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정서조절 능력점수는 두 가지 하위점수를 합산하여 분석하였다.

불안정/부정적 항목에 해당되는 문항은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는 등 변화가 심해서 기분을 예측하기 힘들다’, ‘쉽게 좌절한다’ 등이 있고 정서통제에 해당하는 문항으로는 ‘슬프거나 화날 때 또는 두려울 때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한다’, ‘다른 사람이 속상해하거나 힘들어할 때 관심을 보이는 등 다른 사람에 대해 감정이입을 잘 한

다'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보육사가 보고한 정서조절능력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5$ 이였으며, 어머니가 보고한 정서조절능력 척도의 신뢰도는 .86으로 나타났다.

3) 공격성

유아의 공격성은 Schwartz, Chang과 Farver (2000)의 공격성 척도를 박혜경과 박성연(2002)이 번안하고 수정한 교사용 설문지 8개 문항 중 3-5세 유아에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외현적 공격성 5개 문항을 선택해서 보육사와 어머니 보고용으로 사용하였다. 공격성 척도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공격성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공격성 척도의 예로는 '다른 아이들을 겁주거나 괴롭힌다', '다른 아이들을 때리거나 밀어서 싸움을 건다', 등을 들 수 있으며, 보육사와 어머니가 보고한 공격성 척도의 Cronbach's α 신뢰도는 각각 .90과 .94로 높게 나타났다.

3. 자료수집 절차 및 분석

시설보호 유아에 관한 자료수집은 한국아동복지 연합회에 인가된 유아양육시설 중 5곳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진행되었으며, 질문지를 배부 한 후 약 10일에 걸쳐 총 121부가 회수되었으나 그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부실하게 기재된 자료를 제외한 총 110부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한편, 일반가정 유아는 서울시와 경기도 신도시 내의 어린이집 4곳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어린이집을 통해 어머니들에게 배부된(176부) 설문지는 약 일주일 후에 116부가 회수되었으나 미완성된 설문지 11부를 제외한 105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기초분석을 위해서는 SPSS 15.0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연구문제인 아동의 성과 시설거주 여부에 따른 양육자의 애착과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유아에 대한 양육자의 애착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공격성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로 각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으며, 회귀분석을 통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 이하 수준에서 검증되었다.

III 연구결과

1. 유아의 성과 시설거주 여부에 따른 유아에 대한 양육자의 애착,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의 차이

연구문제 분석에 앞서 시설거주 여부와, 남녀 아동별로 양육자의 애착, 정서조절, 공격성의 기술통계치를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듯이 시설양육자(보육사)의 애착은 일반가정 어머니에 비해 대체로 낮은 한편, 특히 남아와 여아에 대한 차이가 큰 편이었다. 또한 시설보호 유아는 전반적으로 일반가정 유아보다 정서조절능력이 낮은 한편 공격성은 높았으며, 남아와 여아 간의 차이가 적었던 일반가정의 유아와 달리 시설보호 유아의 경우 특히 남이는 정서조절능력이 낮고 공격성이 높았다.

한편, 이러한 시설거주 여부 및 유아의 성에 따른 양육자의 애착, 정서조절, 공격성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규명하기 위해 시설거주 여부와 유아의 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이원

<표 1> 양육자의 애착,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N=215)

	시설보호 유아 M(SD)			일반유아 M(SD)		
	남(N=55)	여(N=55)	총(N=110)	남(N=55)	여(N=50)	총(N=105)
양육자의 애착	3.90(.35)	3.77(.42)	3.83(.39)	4.05(.37)	4.09(.38)	4.07(.37)
정서조절	2.69(.31)	2.73(.38)	2.71(.35)	3.10(.32)	3.13(.31)	3.11(.31)
공격성	2.65(.63)	2.35(.58)	2.50(.62)	2.14(.33)	2.10(.43)	2.12(.38)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설보호 유아의 평균연령이 3.84(SD=.82), 일반유아의 평균 연령보다 4.22(SD=.82)로 높았기($t=3.52, df=213, p<.01$)때문에 연령은 통제하였다.

유아에 대한 양육자의 애착을 종속변인으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에서 보듯이 시설거주 여부($F=25.84, df=1, 210, p<.001$)는 연령을 통제한 상태에도 양육자의 애착에 주 효과를 나타내어, 일반가정 어머니의 유아에 대한 애착점수는 시설보호 유아에 대한 보육사의 애착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표 1> 참조). 그러나 유아의 성의 주 효과나 성과 시설거주 여부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보육사나 어머니 모두 유아에 대한 애착점수에서 유아의 성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한편,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성과 시설거주 여부에 대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3> 참조), 역시 시설거주 여부

($F=75.27, df=1, 210, p<.001$)는 연령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서조절에 주 효과를 나타내, 일반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시설보호 유아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1> 참조). 그러나 유아의 성의 주 효과와 성과 시설거주 여부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시설이든 일반가정이든 상관없이 유아의 성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또한 시설거주여부와 유아의 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한 결과, <표 4>에서 보듯이 유아의 성($F=5.95, df=1, 210, p<.05$)과 시설거주 여부($F=25.09, df=1, 210, p<.001$)는 공격성에 주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성과 시설거주 여부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시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남아는 여아보다 높은 공격성을 나타내었고, 시설보호 유아의 공격성이 일반가정 유아의 공격성보다 높았다.

<표 2> 양육자의 애착에 대한 유아의 성과 시설거주 여부의 이원변량분석 (N=215)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P
연령	.91	1	.91	6.49**	.01
유아의 성	.07	1	.07	.48	.49
시설거주 여부	3.62	1	3.62	25.84***	.00
성×시설거주 여부	.38	1	.38	2.70	.10
오차	29.43	210	.14		
합계	33.83	214			

** $p<.01$ *** $p<.001$

<표 3>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에 대한 성과 시설거주 여부의 이원변량분석 (N=215)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P
연령	.01	1	.01	.05	.83
성	.07	1	.07	.66	.42
시설거주 여부	8.36	1	8.36	75.27***	.00
성×시설거주 여부	.00	1	.00	.00	.97
오차	23.33	210	.11		
합계	32.13	214			

*** $p < .001$

<표 4> 유아의 공격성에 대한 성과 시설거주 여부의 이원변량분석 (N=215)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P
연령	.85	1	.85	3.33	.07
성	1.51	1	1.51	5.95*	.02
시설거주 여부	6.37	1	6.37	25.09***	.00
성×시설거주 여부	.85	1	.85	3.35	.07
오차	53.30	210	.25		
합계	64.67	214			

* $p < .05$ *** $p < .001$

2. 유아에 대한 양육자의 애착과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능력의 매개효과

연구문제 2인 매개효과 분석에 앞서, 양육자의 애착과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대상 유아전체, 시설보호 유아, 일반가정 유아 각 집단을 대상으로 전체 및 남녀 유아 별로 유아의 연령을 통제한 부분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연구대상 유아 전체에 대한 분석결과(<표 5> 참조), 양육자의 애착은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r = .43, p < .001$)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유아의 공격성과는 부적 상관($r = -.21, p < .01$)을 나타내었다. 또한 정서조절 능력은 공격성과 부적 상관($r = -.25, p < .001$)을

나타내었다. 한편 유아의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 양육자의 애착은 남아와 여아 모두 정서조절 능력과 정적 상관을, 그리고 공격성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간의 부적 관계는 남아에게서만 나타났다. 즉 연구대상 전체유아의 경우, 양육자의 애착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높고 공격성은 낮은 한편,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낮았다. 그러나 정서조절과 공격성간의 부적 관계는 특히 남아에게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편, <표 6>에서 보듯이 시설보호 유아를 대상으로 한 경우 양육자의 애착이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r = .21,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지만, 양육자의 애착과 유아의 공격성간의

<표 5> 연구대상 유아전체 대상 : 양육자의 애착,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간의 부분상관관계 (N=215)

변인	애착			정서조절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정서조절	.43***	.43***	.45***	-	-	-
공격성	-.21**	-.23**	-.22**	-.25***	-.43***	-.07

** $p < .01$ *** $p < .001$

관계나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 시설보호 여아의 경우, 양육자의 애착은 정서조절과 정적 관계를, 공격성과는 부적 관계를 나타내 양육자가 애착을 보일수록 시설보호 여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높은 반면 공격성은 낮았다. 반면 시설 남아의 경우는 양육자의 애착은 정서조절 능력이나 공격성과는 상관이 없었으나, 정서조절만이 공격성과 부적인 상관($r = -.36, p < .001$)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일반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유아에 대한 양육자의 애착은 유아의 정서조절과 정적 상관($r = .47, p < .001$)을 나타내었으며, 남아와 여아 각각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경우도 같은 양상(남아 : $r = .50, p < .001$; 여아 : $r = .40, p < .01$)을 나타내었다. 즉, 일반가정의 유아는 양육자의 애착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남아와 여아에게서 같게 나타났다. 그러나 애착과 공격성간의 관계나

정서조절과 공격성간의 관계는 그 어떤 경우에도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와 <표 6>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적 역할을 검증하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세 가지 연구변인들 간의 유의한 상호 상관관계가 나타난 경우는 연구대상 유아전체의 경우와 전체 유아중 남아의 경우였으며, 시설보호 유아나 일반유아 집단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양육자의 유아에 대한 애착과 유아의 공격성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정을 검증하기 위한 매개분석은 전체 유아집단 및 그 중 남아만을 대상으로만 실시하였다. 즉, Baron과 Kenny의 경로분석 모델에 근거하여 첫 번째 단계에서는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인(양육자의 애착)이 매개변인(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으며, 두 번째 단순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

<표 6> 시설보호 유아 및 일반가정 유아 대상 : 양육자의 애착,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간의 부분 상관관계

유아집단 변인	시설보호유아(N=110)						일반유아(N=105)					
	애착			정서조절			애착			정서조절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정서조절	.21*	.19	.24*	-	-	-	.47***	.50***	.40**	-	-	-
공격성	-.13	-.11	-.24*	-.13	-.36**	-.12	-.11	-.21	-.01	-.09	-.12	-.05

* $p < .05$ ** $p < .01$ *** $p < .001$

<표 7> 전체 연구대상 유아의 공격성에 대한 양육자의 애착,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의 회귀분석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정서조절		공격성
애착	.43***	-.21**	-.12
정서조절			-.20**
R^2	.20	.08	.12
F	22.12***	9.15***	9.22***

** $p < .01$ *** $p < .001$

고, 세 번째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새로운 독립변인으로 동시에 투입한 후,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성이 감소하거나 사라지고,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회귀분석 과정에서 유아의 연령은 통제하였다.

그 결과 <표 7> 에서 보듯이 전체유아 집단의 경우, 유아에 대한 양육자의 애착이 종속변인인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정서조절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는 사라져($\beta = -.18, p < .01 \rightarrow \beta = -.12, ns$) 정서조절 능력은 양육자의 애착과 유아의 공격성간의 관계에서 완전한 매개역할을 하였다. 즉, 양육자의 애착이 유아의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정서조절 능력을 매개로 영향을 미쳐, 유아에 대한 양육자의 애착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높아지고, 나아가 정서조절 능력이 높은 유아는 공격성을 낮게 나타내었다.

또한 전체유아 집단 중 남아만을 대상으로 매개분석을 한 결과, 양육자의 애착, 정서조절 능력, 공격성간의 관계 역시 유아에 대한 양육자의 애착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정서조절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사라져($\beta = -.23, p < .01 \rightarrow \beta = -.06, ns$) 완전 매개역할을 하였다(<표 8> 참조). 따라서 양육자의 애착은 남아의 공격성에

<표 8> 전체 남아의 공격성에 대한 양육자의 애착,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의 회귀분석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정서조절		공격성
애착	.43***	-.23**	-.06
정서조절			-.40**
R^2	.20	.12	.24
F	13.53***	7.11***	11.35***

** $p < .01$ *** $p < .001$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정서조절능력을 매개로 영향을 미쳤다. 즉 남아에 대한 양육자의 애착이 높을수록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은 높아지고, 정서조절 능력이 높은 유아는 공격성이 감소됨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만 3-4세 유아를 205명을 대상으로 유아에 대한 양육자의 애착,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이 유아의 성과 시설거주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 양육자의 애착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시설보호 유아 110명과 일반유아 105명의 양육자인 보육사와 어머니 들로부터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서는 유아의 성과 시설거주 여부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변량분석과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별로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성과 시설거주 여부에 따른 양육자의 애착,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양육자의 애착,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공격성은 시설거주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보육사는 일반가정의 어머니보다 유아에 대한 애착이 낮은 한편, 시설보호유아는 일반가정의 유아보다 정서조절능력이 낮았으며 높은 공격성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설아의 높은 공격성을 보고한 선행연구들(성미영, 2006; 유안진 등, 2001; 이강이 등, 2002)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시설보호아동의 주요 입소 사유가 부모부재, 경제적 문제, 부부불화 등으로 나타나며, 부모부재에 따른 불안정한 양육자와의 애착이 아동의 심리·정서적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유안진 등(2001)의 연구와, 부부간의 불화나 경제적인 문제를 경험한 아동은 감정적인 고통을 겪음에 따라 공격적인 행동이나 역기능적 행동을 발달시킨다(권영욱·이정덕, 1999)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또한 보육사의 애착점수는 일반가정의 어머니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평균적으로 9명의 유아를 돌보는 시설환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시설이라는 환경이 유아와 양육자간의 애착관계, 정서조절 능력, 공격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유아의 성은 정서조절이나 양육자의 애착과는 무관하였으며, 공격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남아가 여아보다 공격성이 높았다. 공격성의 성차에 대한 본 연구 결과는 일반적으로 남아의 공격성이 여아보다 더 높다는 연구결과(Tremblay, 2000)를 지지하나, 일반유아 보다는 시설보호 유아의 경우 남아에게서 특히 더 높은 공격성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성과 시설거주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뿐 만 아니라 정서조절능력이

나 양육자의 애착 역시 성과 시설거주 여부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 유아의 연령이 평균 3.8세~4.2세로 어렸기 때문일 수 있다. 공격성을 예로 들어보면, 어린 유아의 경우는 공격성이 눈에 띄게 표현되지 않지만, 시간이 경과될수록 공격성향이 시설양육이라는 환경적 요인과 결합되어 누적됨에 따라 특히 남아의 경우 더 높은 공격성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유사한 맥락에서 정서조절 능력 역시 같은 경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설거주 여부와 성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추후 더 나이든 아동을 대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양육자의 애착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그리고 유아의 공격성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양육자의 애착은 시설보호 유아나 일반가정 유아 모두에 있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민감성이나 애착관계의 질이 영유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학자들(Calkins, 1994; Cassidy, 1994; Thompson, 1999)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한편 예측한 바와 같이 양육자의 유아에 대한 애착은 유아의 공격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양육자의 애착이 높을수록 공격성은 낮았다. 그러나 애착과 공격성간의 부적관계는 전체 남녀 유아와 시설 여아에서만 나타났으며 시설 남아나 일반가정 유아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전체유아를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공격성과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 정서조절능력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낮았으나 특히 시설에서 양육되는 남아에게서 이러한 부적관계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반면, 일반가정의 유아에게서는 정서조절과 공격성간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정서조절과 공격성간의 부적관계를 입증한

선행연구들(박성연·강지훈, 2003; 박혜경·박성연, 2002)을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시설보호 남아에게서만 나타난 정서조절과 공격성간의 부적 관계는 일반가정의 남녀 유아나 시설보호 여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설보호 남아의 공격성이 특히 높고 정서조절능력이 낮은데 기인할 수 있다.

셋째, 정서조절능력이 유아에 대한 양육자의 애착과 공격성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알아본 결과, 연구대상 전체유아의 경우와 특히 남아의 경우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유아에 대한 양육자의 애착과 공격성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양육행동과 공격성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선행연구 결과(김선숙, 2007; 박혜경·박성연, 2002)를 지지하는 것으로 유아에 대한 양육자의 애착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을 증가시킴으로써 공격성이 감소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에 상관관계 분석결과 세 개의 연구변인들간의 관계가 각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시설보호유아나 일반가정 유아의 경우는 매개분석을 할 수 없었다. 즉 시설보호 유아나 일반가정 유아 각각을 대상으로 한 상관관계분석에서 살펴보면 애착과 정서조절간의 관계는 시설보호 여아 및 일반가정 남아와 여아 모두에서 유의한 관계를 보였으나 시설보호 남아에게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애착과 공격성간의 부적관계는 시설보호 여아에게서만 나타난 반면, 정서조절과 공격성간의 부적관계는 시설보호 남아에게서만 나타나 시설보호 유아의 경우 성에 따라 서로 다른 발달적 경로를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말하면 시설보호 여아의 경우는 양육자의 애착이 정서조절이나 공격성에 중요한 변인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 한편, 시설보호 남아의 경우는 양육자의 애착 등 환경적 요인보다는 정서조절능력이라는 개인적 특성

이 공격성에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에 대한 확인은 기질을 포함한 보다 정교한 연구설계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시설보호 유아와 일반유아 간에 유아에 대한 양육자의 애착,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변인의 차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시설거주 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설보호 유아는 양육자와 애착을 형성하는 데 있어 일반유아보다 어려움이 있고 일반유아에 비해 정서조절 능력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설보호 유아는 일반유아에 비해 높은 공격성을 나타내게 된다고 본다. 또한 애착과 공격성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는 남아에게서만 나타난 반면, 시설보호 유아의 경우 세 연구 변인들 간의 관계가 유아의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남아와 여아가 시설에서 경험하는 환경의 영향이나 공격성발달 경로는 서로 다를 수 있음을 함의하였다.

상관관계에 기초한 본 연구결과는 인과적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연구대상 표집 및 자료수집 방법, 그리고 측정방법에서 몇가지 제한점을 지닌다. 우선 자료수집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연구대상자의 수가 적을 뿐 아니라 두 집단 아동의 표집지역이 차이가 있으며,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입소기간이나 입소시기를 통제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표집지역으로부터 보다 많은 아동을 대상으로 입소관련 변인들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보육사와 어머니의 보고에만 의존한 측정방법으로 인해 유아의 행동특성을 판단하는데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자와의 면담 및 실험, 관찰 등 다각적인 평가를 병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시설보호아동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에서 접근성이나 자료수집이 용이하지 않은 시설보호 유아를 대상으로 양육자의 애착과 시설보호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 정도를 일반가정 유아와의 비교를 통해 시설보호 유아의 발달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또한 시설거주 여부에 따른 양육자의 애착,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양육자의 애착과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시설보호 유아의 공격성 발달에 대한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권영옥 · 이정덕(1999). 부부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20(2), 299-317
- 김상아 · 박용섭(2007). 행복에 초점을 둔 현실요법 집단프로그램이 입소기간에 따른 시설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6, 288-317.
- 김선숙(2007). 부모의 양육행동의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32, 65-95
- 김지윤(2007). 유아의 기질 및 부부갈등과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혜련 · 장정순 · 백은형(1997). 시설아동의 심리학적 실태와 상담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 아동단체협의회*.
- 박성연(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남아의 공격성간의 관계 및 세대간 전이. *아동학회지* 23(5), 41-166.
- 박성연 · 강지훈 (2003). 남 · 여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1), 1-14.
- 박현숙(1998). 갈등 가정과 이혼가정의 자녀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혜경 · 박성연(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8), 87-98.
- 보건복지부(2007).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종사자 현황. 서울 :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 성미영(2006). 시설보호 여부에 따른 아동의 정서성 발달과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 *한국생활과학회지*, 15(1), 17-29.
- 안지영(1992). 아동의 공격성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3(2), 161-174.
- 양연숙(2000). 영아의 타인양육 경험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정서조절.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유안진 · 민하영 · 권기남(2001). 시설아동의 자아정체감과 심리· 사회적 적응 :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9(2), 135-149.
- 이강이 · 성미영 · 이순형(2002). 시설보호 아동의 인지 능력에 따른 행동문제. *대한가정학회지*, 40(2), 57-66.
- 이진숙 · 한지현(2005). 시설보호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간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5(6), 951-959.
- 임희수 · 박성연(2002).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37-54.
- 황현주(2005).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측정도구 개발과 타당화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insworth, M. D. S. (1967). *Infancy in Uganda : Infant care and the growth of love*. Baltimore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Baron, R., & Kenny, D.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s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ronmwich, R. M. (1990). The interaction approach the early intervention.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 66-79.

- Calkins, S. D. (1994). Origins and outcome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 regulation. In Fox, N.(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p.53-72).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 Cassidy, J. (1994). Emotion regulation : Influence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In Fox, N.(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p.228-249).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 Coie, J. D., & Dodge, K. A. (1998). Social-information-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6), 1146-1158.
- Cole, P. M., Martin, S. E., & Dennis, T. A. (2004). Emotion regulation as a scientific construct : Challenges and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research. *Child Development, 75*, 317-333.
- Crick, N. Casas, J., & Mosher, M. (1997).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in pre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33*(4), 579-588.
- Crick, N., Werner, N., Casa, J., O'Brien, K., Nelson, D., Grotpeter, J., & Markon, K. (1999). Childhood aggression and gender : A new look at an old problem. In D. Bernstein(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44*(pp.75-141). Lincoln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Crockenberg, S. B. (1986). Are temperamental differences in babies associated with predictable differences in caregiving? In J. V. Lerner & R. M. Lerner(Eds.). *Temperament and social interaction in infant and children*. New York : Jossey-Bass.
- Dodge, K. A. (1986). A social-information-processing model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In M. Perlmutter(Ed.),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Vol.18, pp.77-125). Hillsdale, NJ : Erlbaum.
- Hart, C., Yang, C., & Nelson, D. (2001). *Physical and relational aggression : Gender and parenting style linkages i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Paper presented in symposium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Minneapolis, April, 2001.
- Maccoby, E. E., & Jacklin, C. N. (1980). Sex difference in aggression : A rejoinder and reprise. *Child Development, 51*, 964-980.
- Lamb, M. E., Hwang, C. P., Ketterlinus, R. D., & Fracasso, M. P. (1999). Parent-child relationships :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In M. H. Bornstein, & M.E. Lamb. *Developmental psychology : An advanced textbook*(pp.411-450). London : LEA.
- Quiggle, N. L., & Dodge, K (1992).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aggressive and depress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1305-1320.
- Schwartz, D., Chang, L., & Farver, J. (2000). Correlates of victimization in Chinese children's peer groups. Paper presented at ISSBD XIV Meeting in Beijing.
- Shield, A., & Cicchetti, D. (1998). Reactive aggression among maltreated children : The contributions of attention and emotion dysregula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7*, 381-395.
- Rubin, K., Stewart, S., & Chen, X. (1995).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In N. Eisenberg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Vol.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5th ed., pp.619-700). New York : Wiley.
- Rutter, M. (1972). *Maternal deprivation reassessed*. Baltimore : Penguin Book, 1972.
- Schwartz, D., & Proctor, L. J. (2000). Community Violence Exposure as a Predictor of Aggression and Peer Victimization. Paper presented at ISSBD XIV Meeting in Beijing.
- Shield, A., & Cicchetti, D. (1998). Reactive aggression

- among maltreated children : The contribution of attention and emotion dysregula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7*, 381-395.
- Thompson, R. (1999). The individual child : Temperament, emotion, self, and personality. In M. H. Bornstein, & M.E. Lamb. *Developmental psychology : An advanced textbook*(pp.377-409). London : LEA.
- Tremblay, R. E. (2000).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 during childhood : What have we learned in the pa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2), 129-141.
- Weinberg, M. K., Tronick, E., Cohn, J. F., & Olson, K. L. (1999). Gender differences in emotional expressivity and Self-regulation during early infancy. *Developmental Psychology, 35*(1), 175-188.

2008년 8월 31일 투고, 2008년 1월 12일 수정
2009년 1월 16일 채택